

성경공부의 당위성과 바른 자세 (딤후 3:15-17)

성경연구의 자세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거듭나게 되며, 이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난 생명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거듭나는 수단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듭나는 수단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만 그치고 이후 성장해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 앞서 말씀을 거듭남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재가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성경말씀 한 두절을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후 도무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흉내내기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전혀 성경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해 나가지는 못합니다. 주일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가 신앙생활 하는 모

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동기와 목적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성경 지식이 지식 그 자체로만 머무르고, 나아가 어리석게도 교만으로까지 발전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성경 연구가 이러한 병폐를 초래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는 만큼, 그에 걸맞도록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지식만을 쌓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현대판 영지주의에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지식욕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훌륭하다 해도, 모르는 것이 아직도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중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실천하지 않는 지식이란, 사실상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도 개인적인 경건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교회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땅히 성경을 연구해야 하며, 아울러 이 목적을 더욱 더 견고하게 붙잡아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필요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목적: 구원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15절). 이 말씀을 보면, ‘성경’, ‘그리스도 예수’, ‘믿음’, ‘구원’, ‘지혜’ 등의 개념들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며, 또한 구원을 얻는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좀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영생의 의미이고, 성경을 통하여 이 영생으로서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5장 39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대한 증거와 영생의 문제를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 말씀을 가리켜 ‘구원의 방도’ 혹은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방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오직 성경만이 ‘은혜의 방도’라는 의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될 때에만 이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성령께서 쓰시는 것 이외에 은혜의 방도가 달리 있을 수 없으며, 이 때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을 연구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아니하였다면, 그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목적을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에 반드시 이르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성경공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도, 이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좀더 정확한 의미로는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성경공부란 참으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도덕실천의 지침서로 성경을 대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종교적인 위로를 받아 평안을 얻어 안정을 누리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혹은 무언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찾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러한 체험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야릇한 심정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기타 성경을 그것의 목적에 맞지 않게 연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복리의 증진을 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대시키고 자기를 행복하고 윤택하게 하려는 심정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증가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본의를 크게 벗어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되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자기 중심주의로 살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롬 14:7-8; 고전 10:31).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잡습니다. 만일 성경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바로잡지 아니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처방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그릇된 방법으로 쓰고 있으니, 달리 무엇으로서는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

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실컷 읽고 연구했는데도 자신의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릇되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딤후 3:7).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한에는 교회에 들어와서 제아무리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자다운 각성과 태도에 성립되는 일입니다. 곧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실질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행되어 나가는 자리에 걸맞도록 자신을 갖다 놓는 차원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큰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성도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도자에게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제시한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겠느냐? 지금 믿는다고 시인하기

만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구원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이후에는 과연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일평생 동안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성도의 일생에 걸쳐서 끼치는 영적인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교회를 통한 말씀 선포

그런데 여기서 좀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한다고 할 때, 이것이 개인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하는 일입니다. 개인이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는 방식은 성경이 은혜의 방도가 되어 성도를 구원하는 가장 효과 있고도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혼자 성경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소간 불미스러운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는 성령께서 말씀을 쓰시는 일은 거의 부재하고, 순전히 개인의 종교적인 기지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활동을 보게 될 때에 거의 십중팔구는 도무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을 떠나서 일하신다는 것은 호리만큼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몸을 향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이는 일차적으로 교회에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오신 이 큰 전제하에 비로소 성도 개개인에게 오시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께서 쓰시는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되어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으로서 성도를 양육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씀의 수종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사 당신의 택한 백성을 중생시키시고 또한 성화에도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도가 교회의 품을 떠나 개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은혜의 방도로 쓰시느냐의 측면에서는 더더욱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씀을 교회의 권위로서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 보다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의 수종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어 말씀을 바르고 의미 있게 선포케 하시어 성도들의 탄생과 양육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를 특별히 귀한 사람인양 부각시키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제도가 있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제도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교회적으로 그 실력과 순수성을 검증받은 사람이어야 만이 비로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기분 내키는 대로 나서서 말씀을 선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전문가인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되면, 성도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가 평소에 성경을 일상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생활로 뒷받침되고 있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의 여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씀연구를 게을리 하기 때문에 종종 사이비 목사들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전하고 미혹해도 그러한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 선포가 과연 성경적 근거를 정당하게 갖는 것인지, 아니면 사이비적인 것인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도무지 성경적 사상에 배치된다면, 이때에는 지체 없이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개인이 어떻게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목사의 성경 지식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저런 연조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서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자 다양한 기독교 문화와 접해 있고, 주위에 다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의 방향성 정도는 능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력으로써 성도들은 만일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가 더 이상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보존되고, 교회도 타락하지 않고 보호됩니다. 반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이때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용될 때에 성령께서 이것을 가장 유효하게 은혜의 방도로 쓰시게 됩니다. 물론 성도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도 구원의 도리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좀더 폭 넓고 깊은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세우신 말씀의 수종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큰 원칙에 기초하여 다음 단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읽고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주관이란 것에 의하여 신앙의 큰 틀이 형성되기 십상이고, 따라서 교회와는 상관없는 순전히 개인주의적인 신앙형태를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특정 개인이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좀더 깊게 성경으로 상고하는 것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행여라도 혼자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리 저리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부터 선포된 말씀에 입각하여 자신의 신앙자세를 고칠 것은 고치고, 굳힐 것은 굳히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는 이를 성경으로서 상고함으로 더더욱 확증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며, 끝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식의 신앙생활의 실상이 있다면, 이는 그만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실상이 나와야 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입으면 삶을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은혜가 성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은혜를 '왕노릇하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롬 5:21). 은혜는 느낌이나 기분 혹은 관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은혜는 흑암의 큰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성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

라로 옮겨주는 역동적인 것이기에 가히 왕노릇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의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게 되면, 자신의 눈이 그만큼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광채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성도는 여기에 비추어서 비로소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얼마나 고귀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깨닫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온전치 못한 자로 서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에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기에게 역사 해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려고 하는 선한 욕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실제로 더더욱 성령의 소욕을 좇아가게 됩니다.

이는 곧 첫 번째로 교회에서 선포되고 해명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여 의지하는 입에 다름이 아닌 것이요, 두 번째로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부단히 구현해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서는 새 사람다움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다면, 그 실상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말은 그럴 듯하게 하면서도, 도무지 생활 속에서 실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딱한 일

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멀리하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침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정작 교회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엉거주춤하는 상태에서 교회에 가담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에게는 기독교적인 종교관습만이 몸에 붙을 뿐이지, 다시 지으심을 받은 새 아름다운 생명력은 도무지 맛보지도 발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반면 말씀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장성해 나가는 성도인 경우 반드시 그 실상을 만들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날마다 한 단계 높게 증대시켜내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삶의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으로 삼는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경륜으로서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집행해 나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자기 자신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서 있는 것을 깨닫는 ‘구속사’ 해석의 안목이 있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가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각성하게 되고, 기꺼이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그 찬란한 광채를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이때에 교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갖게 되는 까닭에 자기 자신을 더더욱 교회원다운 자리에 갖다 놓

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길 때의 성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쓰시는 데서되어지는 가장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상 첫 번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목적: 성화

두 번째로, 바울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성도가 구원 받은 후 계속해서 성경을 깨닫고 여기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는 좀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우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적인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옛 사람의 요소는 사라지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활동'이 명료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계시(啓示)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계시가 온 이유는, 인간은 동물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존재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동물들처럼 그렇게 이성 없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의 기능이란 것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인간으로 창조된 의의와 가치를 다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가 이 일에 협력하고 하나로 일치가 되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의의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일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태초의 계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계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영혼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의 생명은 더더욱 풍성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잘 깨닫는 중에 순종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선악과나무와 관련한 계시를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를 지게 된 것이요,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악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불순종은 당시 아담은 온 인류의 언약의 머리였기에 그를 통하여 태어나는 인류 모두에게 치명적인 해독을 끼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롬 5:1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영혼의 기능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사실 인간의 상태란 것이 일반 동물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있으나 사실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 활동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존재하는 가치가 상실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요, 곧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 타락했을 때, 이렇게 인간다운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

는데, 단순히 가치만 상실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큰 죄책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를 불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일 4:10). 그래서 이후부터 특별계시의 역사라고 하는 구속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사역으로서의 구속사인 것이요, 동시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역으로서의 계시사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주옥같이 전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계시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구원방식을 보여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원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거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먼저 구원부터 베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백성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당겨서 적용하심으로 그렇게 하였고, 신약백성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구원을 베풀어주십니다. 이렇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다음에는 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 성도는 '온전해지는 인간'이라는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져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에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이 뒤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성도는 더더욱 온전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제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교회가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극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도들이 도무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교회 제도 안에 묶여 있을 것만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는 데서 구원이 얻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거의 의식으로 채워졌고, 어찌다가 있는 강론조차도 자기네만 아는 라틴어와 같은 언어로 몇 마디 중얼거리듯이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고서야 과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행하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설혹 무언가를 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별도의 문제인데, 하물며 아예 알지 못하는 한에는 아무 것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기는 하되 정작 깨닫거나 해석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한에는 은혜의 방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속에서 생명 작용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도구로 쓰시는 데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읽혀져야 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단순히 지성을 사용하여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 그에게서 새 생명의 능력이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쓰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이 늘 생활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성경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문제를 만난다거나 할 때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성경을 이리 저리 뒤적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몇몇 개를 따내어 적용하는 식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유일한 방도인 성경

성도는 오직 성경만이 은혜의 방도임을 알고, 평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자세를 길러나가야 합니다. 성도에게서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관이 만들어져 나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신앙생활이란 것도 다 무익합니다. 성경으로서 자신의 신앙관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제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일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무익한 열심을 내게 되어 교회를 망치게 됩니다. 이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한 열심이 나와야만 참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으로서 무언가 깨달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에도 열심을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짜내는 신앙생활의 열심이란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맹목적인 열심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나아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오묘함은 한층 더 깊고 신령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이러할진대, 서너 가지 구호와도 같은 피상적인 말씀 몇몇 가지를 붙잡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로서 기독교라는 것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나서게 되면, 이는 참으로 단순하고 유치하며 어리석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은 영원토록 요원해집니다.

거듭 확인하지만 성경은 은혜의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내용’에 있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찬송을 열심히 부른 다음에 말하기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는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회개의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은혜의 내용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

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겉눈질로 보고는, 그대로 모방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것으로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결과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찬송함으로 더더욱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지 찬송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은혜의 내용이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내용과 수단을 혼동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착각이나 혼돈에 빠집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여기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전개해 나가지 아니하면, 모방과 답습만이 나오게 됩니다. 꾸미고 치장하는 외식이 몸에 붙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작심을 하는 데서만 외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아무리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도, 정작 그것을 뒷받침 해줄 만한 의식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부득불 외식하는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찌되었든지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일날 하루만 보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릅니다. 또한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며 헌금도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의식이나 정신이 그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정신과 각성이 있는 까닭에 거기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외적인 활동을 해야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만을 앞세우게 되다 보니,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모방과 답습과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울 때에 이런 의식과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으면 이런 정신과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우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적인 사람의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옛 사람의 요소는 사라지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활동’이 명료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상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의식의 부단한 상기

세 번째로,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연구의 중요성과 그 올바른 방법론에 뒤따르는 몇 가지 생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연구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가치관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셨던 순종의 삶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본성을 우리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준행할 때에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와 관련한 것들을 섬세하고 풍성하게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사셨던 삶의 외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덕행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외모만의 모방으로 나타나는 것은 위선입니다. 겨우 외모로 흉내나 낸다거나 또는 그렇게 되어진 것을 과시나 하기 위해서 덕행을 이루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 되이 섬기려 하는 마당에 그까짓 자그마한 덕행을 꾸미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아무리 큰 헌신을 동반한 선행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도 같은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동기를 바르게 갖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선한 동기를 가능케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고양된 의욕은 자칫 잘못하면 은밀한 교만으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자신의 의욕을 과신하는 것은 옛 사람의 방식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를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좇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일은 우리 자신의 편견이나 고집과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나가노라면 그것이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내용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주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자세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그 짧은 이성으로써 감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연구 훈련에는 어떤 정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평생에 걸쳐서 이 일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조금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반대로 게으름과 나태 속에 방임하지 아니하면서 꾸준히 일평생 지속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단 일보의 진전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이란 결코 없습니다. 왜

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느긋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조급해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일보씩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예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틀림없이 우리의 만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참된 자유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겸손히 우리 속에서 형성 될 것이며, 그분이 태초 이전부터 소유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에게도 임해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 누리고 계시는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 들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가운데 현재 하나님과 친히 나누고 계시는 교제의 기쁨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임금에게 복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성경 연구를 통하여 이 사실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의 경우

여기서 성경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행 17:11).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절대적인 경외심을 가지고서 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쉽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느 8:3-6 출 24:7), 동시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벧후 1:19-21), 하나님만이 우리로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중에(눅 24:45),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묵상과(시 11:1,2 119:97), 적용과(대하 34:21), 자기 부인과(잠 3:5), 기도를 함으로(시 119:18)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나가려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을 단지 유익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용하며 신학적 지식을 내세우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은, 비록 배우기는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말세에는 직업적으로 일하는 목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론만 유창한 신학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육신 생활에만 얽매이는 신자도 많아져만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행위입니다(딤후 3:5).

당시 '베뢰아'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신사들이었습니다. 만일 거짓 목자가 이곳 베뢰아에 나타나 단지 마음만 들뜨게 만드는 가르침을 베풀었다면, 그는 틀림없는 이들 신사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거짓된 가면이 벗겨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신사적이지 못한 성경 교사들도 넘쳐나고, 동시에 신사적이지 못한 성도들도 넘쳐나는 혼탁의 시대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한 이유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즉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 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여기 저기서 각양각색의 세미나들이 개최되고, 부흥회들이 열립니다. 복음을 다루는 책들은 또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신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못한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양 마구잡이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이나 사상의 통일성과는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자기의 이론에 뜯어 맞추는 식의 성경 강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하나의 큰 단체를 이루어 존재하는 까닭에, 충분한 신학적 지식이 없는 순진한 성도들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하와도 같은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으로 한 단계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야 맙니다. 즉 전통에 맹종하고, 다수를 뒤따르는 어리석은 신앙 형태를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들의 조직이 크다고 하는 이유에 의해서라든가, 또는 우리의 조상과 선배들이 이렇게 해 왔고, 그랬어도 아무 탈도 없는 것이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신앙 형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큰 틀이 잘못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무익한 열심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과 접할 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과정을 가짐이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매월 발행하는 월간지 형태의 책자만 해도 10여종이 넘으며, 매

월 수십 만 권의 책들이 팔립니다. 이들은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만일 성도가 성경을 묵상하는 생활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마땅히 성경 묵상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들 단체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령 마가복음 1장 35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성경 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성경 묵상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언어로써 상대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상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 묵상 단체들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서 만난다거나 혹은 공중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살피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깊고 의미 있게 깨닫게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는 굳이 틀렸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배경 이해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에 빠졌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더 이상 상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하나 따로 만들게 하신 후, 거기서 모세와만 상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이요, 적용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세우는 것 같으나 사

실 뒤로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는 식의 우매한 모습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QT의 허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는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주관적인 틀 속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항상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2:11)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 임했는가를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 세대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 나가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말론적인 마감을 하게 되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큰 원리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것이 어떠한 생명력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 나가느냐의 차원에서 말씀을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할 때에는 성경 계시의 큰 기둥이 무엇이고, 뼈대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

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 해석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며 가르치는 일은, 여럿이라고 하는 복수의 건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큰 빌딩을 지어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를 주셨고, 또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몸소 건물 기둥과 뼈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축자들은 여기에 맞도록 세부적인 기둥들을 세우면서 층층을 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부 구조도 짜고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고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때 이 내부 공사와 장식 역시 빌딩의 큰 골격에 맞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올라간 창문벽에 툭 튀어나오게 창고를 만든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원칙과 기초가 없이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공을 들여서 벽을 만들고 창문을 내고, 벽지를 바르고 해도, 정작 쓸만한 방은 한 칸도 못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것의 기둥과 뼈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 나가게 되면, 결국 건물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건물을 장식하기 위하여 벽지를 바르는 경우라면, 건물 내벽에 벽지를 붙이지, 건물 외벽에다가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벽지에 풀을 바르고 붙인다는 면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이것을 어디에다

붙였는가에 따라서 효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못 하나를 박을 때에도, 필요한 종류와 치수를 잘 맞도록 골라서 박아야 합니다. 췌기, 곧 나무못을 박아야 할 곳에 쇠못을 박는다거나, 쇠못을 박아야 할 곳에 나무못을 박게 되면, 그야말로 이 건물은 엉망진창이 되고야 맙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그 자체와 성경 묵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틀 속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성을 증대시킨다거나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결과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벽지를 빌딩 외벽에 붙이는 경우와도 같게 됩니다. 또 성경 묵상을 했는데, 정작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을 잘못했다면, 이 역시 건물 벽에 툭 빠져 나오도록 창고를 지은 것과도 같아집니다. 그리고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쇠못을 박아야 할 곳에 나무췌기를 박는 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짓는 일은 쓸모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건물을 짓듯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물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건물의 구조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면면, 곧 그들 각자의 실력이나 기술력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에 특기가 있고 하는 것들을 피차간에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표 달성에만 사로잡혀 마구잡이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없이 건물을 짓는다거나 설계도가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림짐작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의 경우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본주의적입니다.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거침이 없이 우후죽순처럼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 나갑니다. 서로 나서서 성경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도무지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으며, 겉핥기만 토라지고 오해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합니다. 실상은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공동체적인 척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기적인 손해가 나타날 때에는 가차없이 공동체적인 측면을 무시해버립니다. 평소에 실컷 교회의 사명이 어찌고저찌고 하더니만, 어느 날엔가 하루아침에 이사가 버리고 맙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처음에 개척교회를 이룰 때에는 뼈를 묻을 때까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성도들을 다독거리더니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니까, 언제 그런 말했느냐는 듯이 옮겨버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신사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

에 앞서 성경공부가 순전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데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신사적이지 못한 데서 나오는 신앙생활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데서 나타날뿐더러 설혹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항상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짜 넣게 됩니다. 어떤 틀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위험한 성경 해석도 없습니다. 선교라는 틀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갈데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건을 선교적 차원으로 해석합니다. 성경 묵상의 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성경 묵상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축복의 틀을 가진 사람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도 같은 말씀에만 눈이 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신사적이지 못한 데서 나오는 신앙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도 잘못하고, 적용도 잘못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무례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복음의 사상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마디 말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음 사상이 빈약해져 있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몇 가지 틀만이 복음의 전부인양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맨 날 부르짖는 것이 전도요 교회 부흥이요, 새벽기도 참석 잘 하기로, 매일 성경 잘 하기로,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기 등입니다. 도무지 이 틀과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며, 부흥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 목상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며,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나갑니다.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억지로 형식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분쟁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교양적인 것일 때에도 비신사적이라고 합니다. 맹목적인 자기 주장이 강하여 도무지 폭넓은 진리를 받아들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워도 도무지 성경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게 되면 이 또한 비신사적인 것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마음이 넓고 관용이 큼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위에 확고히 서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이 복음의 사상이 자신의 인격 전체를 지배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받들어 나갑니다. 복음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참 목자의 음성이고 어떤 말씀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샅군 목자의 음성인지 충분히 분별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한 진리가 하나님의 참 복음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거기에 자기들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하나님의 말씀의 이중적 작용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믿고 거기에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들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얻지 못하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도리어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때 생명을 빼앗긴 사실이 이렇게 말씀 전파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 오셨건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적용으로 일관해 나오면서, 구약 종교를 그들 자신의 행복과 복락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자기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것으로 여겼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는 이런 다분히 육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 종교의 큰 정신과 사상을 변질시켜 버렸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열심으로서 실상은 가장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강하고 다수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릇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가차없이 신속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가령 구약의 성전이란 것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건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성전 건축 운운하면서 헌금을 내도록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구약의 십일조 규례가 신약적으로는 폐지되었다 하는 것도 알았다면 더 이상 교회에서 십일조를 내도록 가르쳐서는 안되고 성도들 또한 이런 명목으로는 헌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한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어떻게 좀더 경건하게 사느냐의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나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내는 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가운데 제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인들 제대로 될 수 있겠으며, 성경 묵상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건물 바깥에다가 벽지를 바르는 격이요, 종이끼리 붙일 자리에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끼리 붙여야 할 자리에 풀을 바르는 격이 되고야 마는 열심인 것입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배

우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각오

성도가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노라면 잃어버리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위선일 것이며, 또한 죄를 사랑하던 마음, 진실하지 못하던 일체의 태도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연구 과정에 속해 있고, 이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려 할 때에, 텔레비전 프로를 시청하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거나 기타 다른 취미 생활과 같은 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대편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가치에 의하여 충분히 보상될 것입니다. 무익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대신 유익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의 자기 부인은 이 겉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겉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건강, 신분, 명예, 재산 등의 상실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건강을 헤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명예도 버릴 수도 있으며, 복음을 위해서 호화로운 음식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섬기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삶을 자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겈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부정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추구되어야 할 목표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부인에 있어서 겈사람을 죽이는 이 측면도 잘 강조되지 않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겈사람이 죽는 자기 부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것을 부단히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교역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 속에서 이것을 부단히 이루어야 합니다. 가령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고, 그가 그 힘든 사역을 수고한 것을 생각한다면, 신분과 명예와 존경에 있어서 극치의 대접을 받아야 했지만, 겈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일체 사양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직무에 뒤따르는 일체의 명예와 신분과 지위와 재산을 포기함으로 겈사람을 죽이는 자기 부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사실상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결과를 얻었기에 '겈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수많은 재물을

지불하고도 결코 사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주시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친히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인격을 부족하나마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금물이며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 이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승리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언제나 우리의 성경 연구에 참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의지하시며, 아울러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령충만은 언제나 성령께서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습을 위한 질문과 점검

1. 성도가 받은 구원의 근거 혹은 수단은 무엇이며, 구원 받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읽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식은 무엇입니까?
3.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좀더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딤후 3:15과 요 5:39에 근거하여 설명해 봅시다.
4. 성경 말씀을 가리켜 구원의 방도 혹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요 20:31에 근거하여 설명해 봅시다.
5.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성경공부 방식의 실례들을 제시해 봅시다.
6. 바울은 어떤 의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7. 성경 연구가 교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왕노릇 하는 권세”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9.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기 마련인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10.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1.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인간에게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2. 구약성경 계시의 초점은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13. 오늘날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신앙형태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들을 제시해 봅시다.

14.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5. 모방과 답습으로 일관하는 신앙생활 모습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그러한 잘못에 빠집니까?

16.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덕행에 있어서 결과보다도 올바른 동기가 더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17.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18. 성경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갖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들을 실례로 들 수 있습니까?

19. 오늘날 성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이론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왜 쉽게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까?

20. QT주의자들은 성경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21. 성경 묵상 단체들은 출 33:11을 어떻게 잘못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까?

22. 복음에 대한 풍성한 사상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열심을 내게 되는 데서 나타나기 마련인 잘못된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봅시다.

23. 구약 종교가 유대교로 변질된 원인은 무엇입니까?